

퇴직연금 가입자·적립금 늘었지만

수익률 1%대... 잠자는 개선법안에 국민 노후 '불안'

가입자 600만, 적립금 190조 돌파... '수익률 제고' 발의법안 국회 계류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은 '연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늘는데 수익률은 '뚝'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 규모 1위는 신한은행(19조7520억원)이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상위 20곳> (19년 6월말 기준/단위: 억원)

Table with 3 columns: 순위, 퇴직연금사업명, 적립금. Lists top 20 financial institutions by pension assets.

차지했다. KB국민은행(17조9053억원), IBK기업은행(14조4179억원), KEB하나은행(13조5145억원), 우리은행(12조89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 1위는 현대차증권(11조5371억원)이 차지했다. 그 이후로는 미래에셋대우(9조297억원), 삼성증권(5조8653억원), 한국투자증권(4조8304억원), NH투자증권(2조7668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업계 1위는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보험(24조6888억원)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3조8336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적립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변변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신한은행(1.83%), 현대차증권(1.46%), 삼성생명(1.92%), 삼성화재(1.95%)가 모두 1%대 수익률에 그쳤다.

저조한 수익률로 중간에 퇴직연금을 갠 사람도 2018년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지난 2017년 전보다 약 38% 증가했으며, 인출금액은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수익률 개선안 나왔지만...국회 무관심에 법안 '표류'

지난해 10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디폴트 옵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탁법인은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되고, 근로자 대표가 설립에 참여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수탁법인은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로 떨어진 반면, 수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면서 가입자들의 체감 수수료를 높였다.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맡으며, 법인의 이사진은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동수로 뒤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디폴트 옵션은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한 방법으로 상품이 자동 선택·운용되는 방식이다. DC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방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의 무관심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므로 개선책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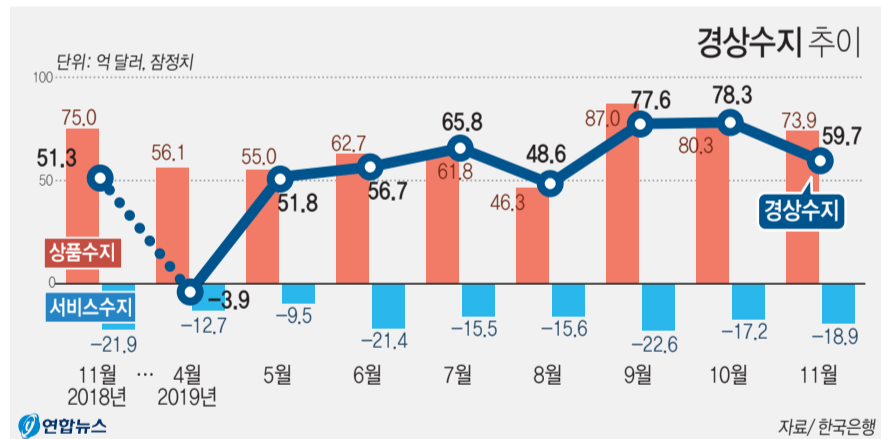


"노란 발자국에서 멈추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 발자국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경상수지 60억달러, 7개월 연속 흑자행진

수출보다 수입 줄어든 '불황형 흑자'

한은,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상품수지 74억달러 흑자, 1.1억달러 ↓ 수출 465억달러 전년비 10.3% 감소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0억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 기조는 뚜렷해진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9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규모도 지난 2018년 11월(51억3000만달러) 대비 8억4000만달러 늘어나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상수지 개선 흐름에도 상품수지(수출-수입)는 줄어 들었다. 지난해 11

월 상품수지는 73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75억달러) 대비 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0월(80억3000만달러)보다도 줄었다.

문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46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째 내림세다. 수입도 391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량, 제조업 위축,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위주로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10분의 1 토막

이태규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불공정행위 과징금 총액 25% ↓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전체 부과액 390억5100만원, 10건보다 89.5% 줄어든 수치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

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 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과징금 실적으로 공정위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순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간 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분양가 규제에 로또 청약 기승"

>> 1면 '풍선효과...'서 계속

또한 수원 팔달구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2019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인 12월 1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8.36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안산 청약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는 248가구 모집에 4873명이 접수하며 평균 19.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안산 지역 최고 경쟁률인 그랑시티자이(2017년 6월)의 9.43대 1을 2배 이상 넘는 수준이다.

안양아파트 시장 역시 뜨겁다. GS건설이 안양시 만안구에서 분양한 아르테 자이는 343가구 모집에 1만1113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3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한 두산건설의 안양 예술공원 두산위브

는 45.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역 최고 경쟁률 기록을 세웠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는 수요자가 많아 상한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도 향후 새 아파트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30만 가구가 넘는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그 중 수도권은 19만8503가구, 이 중 경기도 물량이 9만5414가구로 가장 많다.

/정연우 기자 ywj964@